옥고를 치른 탓으로 몸은 점점 쇠약해져 병석에 누운 지 13일 만에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니 전국 사림의 애도 속에 고향인 비인면 장포리에 안장되었다. 1977년 12월 13일 정부에서는 공의 공로를 인정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그리고 서천군에서는 1980년 공의 업적을 기록한 비문을 묘역에 세웠다. 공의 저서는 당시 대마도 옥중에서 저술한 대마도일기가 아들 문규박씨에 의해 보관되고 있다.

제13장 서면(西面)

서천군에서 가장 많은 축제를 치르고 있는 서면은 3면이 해안으로 반도형으로 되어 있으며, 35㎞의 해안선을 끼고 있다. 따라서 1월 1일 해맞이 축제를 비롯하여 봄철 동백 주꾸미 축제, 가을철 전어 축제, 광어축제 등 바다와 관련된 축제로 사계절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관광서천의 대표적인 지역이다.

해맞이 축제는 12월 31일 해짐이 축제와 더불어 개최되는데, 마량리 바닷가에서 해지는 모습과 해뜨는 모습을 한 곳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연초부터 바닷가 마을이 외지 관광객들로 성황을 이룬다.

동백 주꾸미 축제는 동백꽃이 피는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동백정 일원에서 개최되는데, 동백꽃이 피는 이 시기에 마침 인근 바다에서 잡히는 싱싱한 주꾸미가 맛을 더하기 때문이다.

10월경에 홍원항에서 열리는 전어축제는 전국에서 그 맛을 보기 위해 모여드는데, 이곳에서 잡히는 전어가 전국적으로 가장 맛이 있어 구이와 회 등으로 미식가들의 입맛을 돋우어 준다.

지난 1997년도 관광지로 지정된 춘장대해수욕장과, 부사방조제 또한 이 지역의 명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하면, 주민들도 활달하고 진취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많은 고장이다.

서면은 백제시대만 해도 비중현에 속한 황무지였다. 신라시대 서림군의 영현으로 비비현에 속해서 부락이 형성되기 시작한 곳으로, 고려 때는 임천의 비인현에 속했었다. 고려시대에는 왜구의 침입이 잦았으며, 고려 말 공양왕 시절을 전후하여 수 년 간 황폐화 되었던 곳으로 수군의 첨사영(僉使營)이 마량진(이 때의 마량진 수군첨사영은 남포현에 있었음)에 자리 잡으면서 다시 재건된 지역이다.

조선 초 비인현에 속했으며, 1419년(세종 원년)에 또다시 왜구의 병선 50여 척의 침범으로 한 때 소요지구가 되어 다시 황폐화를 면키 어려웠다. 그 후 다시 세종 때부터 자리를 굳히기 시작했고, 조선 말엽에는 비인군 서쪽에 자리해 있다 해서 서면이라 하여 원두 외 19동리를 관할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북면의 서화, 동화, 장포의 3개리를 통합하여 개야, 도둔, 마량, 부사, 신합, 원두, 월리, 월호리, 주항리를 개편, 서면이라 하고 서천군에 편입되었다.

서면 마량리에 위치한 동백정에는 천연기념물 169호로 지정된 동백나무 숲이 있으며, 80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꽃이 피는 봄철이면 주꾸미 축제와 더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서천화력발전처소가 들어오기 전에 이 일대는 동백정해수욕장으로 주변경관과 함께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해수욕장으로 꼽혔었다.

4백 여 년 전 마량의 수군청사가 험난한 바다를 안전하게 다니려면 이곳에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라는 계시를 받고 제단을 만들었을 때 심은 동백나무가 오늘의 동백숲이라고 전하는데, 지금도 마량리 주민들은 정월 초가 되면 동백정 곁에 있는 당집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비는 풍어제

를 지낸다.

총 2,515ha(경지 997, 임야 1004, 기타 541)의 면적에 2006년 12월 31일 현재 2045세대에 5천1백22명이 모여 살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891, 어업이 종사하는 인구가 867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조금 많게 나타나고 있다.

-주항리(酒缸里)

주항리는 백제 때 비중현에 속했고, 신라시대는 서림군의 영현인 비비현에 속했으며, 고려 때 임천의 비인현에 소속됐었다. 1413년(조선 태종 13)에는 비인현에 속했고, 조선 말 비인군 서면의 지역으로 수렁이 많다 해서 수랑골 또는 주항동이라 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봉하리, 주교리, 주항리를 합하여 서천군 서면에 편입되었다. 수랑골 남쪽에 있는 지역을 송림터라 하며, 옛날에 소나무 숲이 우거졌었다 한다.

수랑골 동쪽에는 갓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마을 가장자리에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건네말은 들건너에 위치한 지역이다.

주항리는 1리 봉하와 2리 상하촌으로 나누어진다.

봉화산을 바라보며 아담하게 모여 앉은 봉하마을은 2반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주로 칠성바위, 밖뜸, 갓골, 고르디, 마장 등으로 불려지는 지역으로 나뉘는데, 봉화산에는 한양과 연락하던 봉화대가 있었다 하며, 현재 과수원이 있는 마장이라는 곳은 말을 매어놓았던 자리라고 전해진다.

칠성바위는 이곳에 일곱 개의 고인돌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지금은 민가가 들어서면서 모두 훼손되고 1기만 민가 곁에 있는 듯 없는 듯 남아 있다.

80년대 초 마을 앞에 건설된 한전 물류수송 철도변 아래 박스 통행로 두 곳이 설치되어 있다.

주항리 상하촌마을은 봉화산 바로 아래 배다리라는 조그만 지역으로 주교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옛날에는 배가 정박했던 곳에 마을이 생겨 이 같은 지명이 붙여졌다 한다. 이곳에서 5백m쯤 가다보면 송림터가 있다.

상하촌에는 청주 한씨가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을에 조선시대 정승이었던 한명회 사당이 있다.

주항리 봉화(峰火)마을 남쪽에 있는 봉화산은 옛날에 봉화를 올렸던 산으로 현재도 산정에는 봉화터가 남아있는 산이다.

특히 이곳의 봉화산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였던 통신망 같은 봉화선에 연결된 봉화대가 아니라 임시로 한 시대에 걸쳐 마련되었던 봉화대였다는 점과, 이곳의 봉화대는 고려 말기부터 조선시대 초기까지 서해안을 지키는 보루(保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고려 말기 남포현에 침입해온 왜구들은 10여 년 동안을 점거하고 그들의 약탈 거점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왜구들은 남포의 해안에서 멀리는 청주, 대전 지역까지 침입해 가서 살인과 방화, 약탈을 일삼았으나 가까운 이 봉화산 부근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다 한다.

왜구가 자주 나타남으로 남포현 부근의 전답에는 풀이 무성하였고 가까운 비인현의 관원도 도주한지 오래였었다. 왜구들이 닥치는 대로 약탈을 일삼을 때 이곳 봉화산에서 봉화가 올랐다. 봉화는 다급한 신호였으므로 다른 봉화대에서 응하여 개경까지 또는 한양까지 봉화가 올라갔으나 군사는 오지 않았다. 왜구는 더욱 심하게 약탈을 하다가 봉화가 오르는 이 봉화대를 없애기 위해 많은 인원

으로 공격을 가해왔다. 그러나 주민들이 교묘한 지형을 이용하여 수렁이 많은 지역으로 왜구를 몰아넣고는 일격에 전멸을 시켰다. 왜구는 다시 몇 차례 공격을 가해왔으나 번번이 전멸하고는 주항리의 봉화산을 점령하는 것을 포기했다 한다.

그 후 왜구들은 조선시대에 접어들어 다시 대대적으로 침범해 올 때 이번에는 봉화산의 봉화대를 먼저 점령하기 위하여 도둔곶으로 쳐들어 왔다. 그러나 왜구들의 선박이 비인만에 들어서기 전에 벌써 봉화산에서는 봉화가 올랐고, 그 봉화를 신호로 주민들이 무기를 들고 도둔곶에 진을 쳤다. 그리고는 만호, 김성길이 함께 왜선이 물가에 닻을 내리기가 무섭게 공격하여 왜구를 무찌르고 적선을 불태워 버렸다.

왜구의 50여척 배가 한꺼번에 불타버린 도둔곶 싸움은 이곳 주민과 왜구와의 싸움이었다. 그래서 많은 약탈을 하던 왜구들이 한 번도 점령 못하였던 봉화대, 즉 주민들이 스스로 재산과 고장을 지킨 지역의 봉화대가 있는 산으로 알려진 산이 이곳 봉화산이다.

이 마을에 있는 충양사는 서울 과천에 세워졌던 사당이 낡고 훼손되어 그 후손들이 1938년 2월 16일 새로 건립한 사당이다. 사당에는 충성공(忠成公) 한명회와 그의 아들, 그리고 6대손 등 3위가 모셔져 있다.

한명회는 세조 때의 정난공신(靖亂功臣)으로 1457년에는 이조판서에 오르고 1459년 황해도를 비롯한 평안도, 함길도(咸吉道), 강원도의 체찰사(體察使)를 거쳐 1461년에는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이 되었고, 1462년에 우의정, 1463년에 좌의정을 거쳐 1466년에 영의정에 올랐던 인물이다. 세조의 충신공으로 왕을 보필하여 조선 초기 문화 발전에 많은 공을 세웠다. 그는 죽어서 세조의 묘정(墓庭)에 배향하였고, 연산군 10년(1504) 갑자사화(甲子士禍)때 윤비(尹妃) 폐사에 관련하였다 하여 부관참시 되었다가 뒤에 신원(伸寃)되었다. 사당의 제사일은 음력으로 11월 14일이다.

개야리 마을회관에서 폐교된 전 칠성초등학교 쪽으로 가다보면 칠성바위라 일컫는 지역이 있다. 이는 이곳에 고인돌이 있기 때문으로 원래 그 고인돌은 7기였으나 현재는 4기만 확인된다. 그중 1기는 애민선정비가 세워져 있으며, 하부가 드러나 개석식 지석묘로 확인되고 있다. 이 지석묘도 나머지 3기와 같이 파손의 우려가 있어 보호가 요구되며, 고인돌이 위치한 지형은 구릉지로 좌우로 경작지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전 칠성초등학교에서 비인 칠지리 방향으로 철길을 건너 과수원을 지나다 보면 왼쪽에 고인돌이 있다. 주항리 주민이 경작하는 밭에 위치한 2기의 고인돌군으로 돌과 잡목으로 우거져 밭 가운데에 있다. 근처에는 문화유적총람(1976)에 서천 주항리 고분군이 있다고 소개된 곳으로 이는 능선하단에 위치해 있다.

-원두리(元頭里)

원두리는 백제 때 비중현 소속이었으며, 신라시대 서림군의 영현인 비비현에 속했었고, 고려 때는 임천의 비인현 소속이었다. 그 후 조선 말 비인군 서면의 지역으로 원머리 또는 원두리라 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북면의 서화리, 동화리, 장포리와 서면 원두리 일부를 합하여 원두리라 해서 서천군 서면에 편입되었다.

원두리는 1리 동포와 2리 당포로 나누어진다. 동포마을은 메재, 벌뚝, 재뜸으로 구성되었는데, 메재는 매재라고도 하며 매봉 같은 형국의 지형으로 매가 나르는 재(山寺)라 해서 그렇게 부른다고 전

해진다.

재뜸은 재 부근에 자리 잡았다 해서 그렇게 부르며, 벌뚝은 들녘에 있는 둑에 옛날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다 해서 벌뚝이라는 지명이 붙여졌다고 한다.

마을 동편에 장군봉이 있고, 마을 안으로 한전에서 이용하는 산업철도가 지나며 열차가 교환하는 원두역이 이곳에 자리 잡고 있다.

당포는 원두리에서 으뜸 되는 마을로, 이곳을 중심으로 하여 다른 곳으로 뿌리를 벋어가는 곳이라 해서 원머리라 부르는 지역이 있고, 원머리 서남쪽으로 칠성바위라는 곳은 옛날 장수 한 사람이 던져서 아래로 떨어진 칠성바위라는 바위가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칠성암이라고도 한다.

원머리 서쪽지역을 장개뜸, 장포라 하는데 긴 사장(沙場)이 마을 앞에 있으며, 옛날에는 여우가 많은 갯가였다 하고, 장개뜸이라고도 부른다.

원머리 서쪽에는 안수박골이 있고, 중앙 쪽에 밖수박골이 있으며, 안수박골과 칠성바위 사이에 산이 있는 산을 안산이라고 한다. 옛날부터 벼슬길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한가하게 보낼 수 있는 수려한 산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성황당너머에 마을이 있다 해서 당너머라 부르는 곳이 있으며, 옛날에는 칠성바위 마을이 장터였으므로 그 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르게 된 마을이다. 마을에 칠성초등학교가 있었으나 지금은 서면초등학교로 통합되어 빈 건물만 남아있다.

원두리 동포 고인돌군은 전 칠성초등학교 자리에서 원두교회 쪽으로 가다가 교회 앞 좌측 육교를 건너가면 박풍화씨 집이 있는데, 그 집 대문 서쪽 면에 있는 고인돌로 일명 거북바위라고 한다. 굄돌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으며, 전에는 이 부근에 여러 개의 고인돌이 있었으나 경지정리 등으로 매몰되었다고 한다. 지역에 있는 고인돌중 해안에 가장 근접해 있는 곳이다.

-개야리(介也里)

개야리는 소나무 숲이 유난히 많고 그 숲을 끼고 드믄 드믄 자리 잡은 텃굴, 개목, 새터 등이 서로 다른 마을처럼 따로 떨어져 형성되어 있다.

마을주민 80%가 금녕 김씨로 형성되어 있다는 개야리는, 백제 때는 비중현에 속했으며, 신라 때는 서림군의 영현인 비비현에 속했고 ,고려 때 임천의 비인현 소속이었다. 1413년(조선 태종 13)에 비인현에 속했다가 조선 말 비인군 서면의 지역으로 지형이 개의 목처럼 생겼다 해서 개목, 또는 개야목, 개묵이라 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신기리와 개야리, 주항리, 원두리의 각 일부를 합하여 개야리라 해서 서천군 서면에 편입되었다.

개목 동남쪽으로 텃굴이라 부르는 마을이 있는데, 옛날부터 사람이 자리 잡은 이곳을 다른 마을에서 텃골이라 부르기 시작하다가 텃굴로 변하여 부르게 되었다 한다.

개목 바깥 쪽에 있는 곳을 밖개목 안쪽에 자리 잡은 마을을 안개목이라 하며, 안개목 동쪽으로 섬이 있는데, 이 섬이 소처럼 생겼다 해서 소섬이라고 한다.

개목 동쪽으로는 금바위라 하는 곳이 있으며, 금암이라고도 하는데 금바위가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금배라고도 한다. 지금은 풀숲으로 우거져 드나드는 사람이 없으나 옛날에는 여름밤에 주민들이 이곳에 모여 앉아 놀았으며, 그 곁에 큰 버드나무가 있었으나 풍상에 쓰러지고, 전에는 이곳에서 바위제를 지내기도 했다.

이밖에도 안개목 뒤 서북쪽으로 범의바위라는 곳이 있으며, 바위에 있는 굴속에서 범이 살았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새로 생겼다 해서 새터, 신기 등으로 부르는 지역도 있다. 금녕 김씨 8대조부가 처음 와서 마을을 형성한 곳이라 한다.

마을에는 장군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는 장군이 앉았던 자리라 하여 둥글게 패어져 있으며, 그 밑에 샘이 있어 그 물로 목욕하면 여름 땀띠가 죽었다고 한다. 마을에 서낭당이 있었으나 개발붐에 따라 그 돌들이 모두 공사에 쓰이고 지금은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개야리에는 고인돌군이 있는데, 마을회관에서 북쪽으로 5m에 1기의 고인돌이 있으며, 성황당 고개에 7기가 있다.

-월리(月里)

월리는 백제 때 비중현에 속한 산과 해변이었다. 신라시대에는 서림현에 속한 비비현이었으며, 고려 때 임천의 비인현 소속이었고, 조선 1413년(조선 태종13)에 비인현이었다가 조선말 비인군 서면의 지역으로 지형이 달(산)의 목처럼 생겼다 하여 달목, 다리목 또는 월향, 월향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외월리, 내월리 일부를 합하여 월리라 해서 서천군 서면에 편입되었다.

벗구산의 서북쪽에 있는 마을을 중뜸이라 하는데, 월리 중앙에 자리 잡았다 해서 중뜸, 중월, 내월이라고 부른다.

달목 동쪽에 있는 마을을 위뜸이라 하며, 상월 안쪽으로 있는 마을을 안태라 하고, 달목 서쪽 지역을 아래뜸이라 하는데, 서동 하월, 서녘동네라고도 부른다.

상월 서쪽에서 부사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서낭댕이라고 하며, 고개에 성황당이 있었다 한다.

아래뜸 동쪽에 있는 마을을 달목이라 하고 다리목, 월항, 월항리라고도 하며, 지형이 반달처럼 생겼다 한다.

마을 앞에는 웅장한 거목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데, 도 지정 보호수로 5백 년 가량 되었다고 하며, 마을의 길흉을 점친다는 전설이 있다.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느티나무 잎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피면 그해는 풍년이 들고, 잎이 아래에 먼저 피고 위가 나중에 피면 나중에 피는 쪽 즉 위쪽 논에 모내기가 늦어 흉년을 예고 한다는 전설이 전해져온다고 한다.

-부사리(扶史里)

부사리는 용굴재를 중심으로 얕은 산들이 앞뒤로 마을을 감싸 안으며 해풍을 막아주고 있어 바닷가 마을인데도 무척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다.

외난(外難)이 있을 때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피난처가 되기도 했다는 마을은 온 주민들이 한 지붕 밑 한 가족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정스럽게 살고 있다. 일제 때 간척사업으로 일구었다는 터전에서 거의가 농업에 종사하며 부사방조제를 건설하기 전까지 마을 앞 바닷가에서 어패류를 채취하여 풍요를 누려왔다.

부사리는 대부사와 소부사로 나뉘어지며, 백제 때 비중현에 속했었고, 신라시대 서림군의 영현인 비비현에 속했으며, 고려 때는 임천의 비인현 소속이었다. 1413년에 비인현 이었을 당시에는 큰 마을을 이룩하였던 지역이었으므로 부사면이라 하였는데, 조선 말 비인군 서면에 속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명동리, 내월리, 개야리 일부를 합하여 부사리라 해서 서천군 서면에 편입되었다.

서낭댕이 서쪽마을을 부사면이라 하는데, 오래 전부터 형성된 큰 마을이었다. 적은 부사면 북동쪽 옆으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을 명동이라고 부른다. 마을이 맑은 햇빛에 수려한 들과 산을 끼고 자리해 있다 해서 명동(明洞)이라 했다고 한다. 적은 부사면 서쪽으로 있는 산을 배보는재라고 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배나 해변에 매달아 놓은 배를 보는 산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부사면 동쪽에서 월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서낭댕이라 하는데, 옛날부터 성황당이 이곳에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수시로 제사를 지내던 곳이라 하며, 이곳은 용처럼 생겼다 하여 용굴재 라고도 부른다.

부사리에 장잣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장자(長者)가 살았던 마을로 크게 세도를 부렸던 마을이라 장자골이라 부르던 것이 변했다 하며, 부사면 동쪽을 적은 장잣골, 서쪽을 큰 장잣골이라 부른다.

대부사 마을 앞바다에는 할미섬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사간척지 안에 들어 그 형체가 없어졌으며, 할미섬은 마을 뒤에 있는 배보는재와 어울린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옛날 한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이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손자가 효성이 지극하여 배타고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로 할머니를 극진히 봉양했다. 할머니는 손자가 배타고 고기잡이 가면 배보는재에 올라 손자 오기만 기다렸는데, 어느 날 손자가 타고 갔던 배가 심한 풍랑을 만나 할미섬 근처에서 죽고 말았다. 그 할머니는 손자가 죽자 그 섬에 들어가 울며 그 넋을 위로하다가 죽었는데, 그 후 그 할머니는 삼신할머니가 되어 가끔 이 섬에 나타났다 하며, 그로 인해 그 섬을 할미섬이라 부른다는 전설이다.

그러나 이제는 할미섬이 없어져 말 그대로 전설의 섬이 되고 말았다. 또한 할미섬이 있었던 맞은쪽에는 샘금이라는 샘이 있는데, 옛날에는 금이 나왔다 하며 그 샘에서 치성을 드려 아들을 낳았다는 할머니가 칠석날이면 그곳에 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부사간척사업으로 부사방조제가 생김으로 인해 어패류를 채취해서 상당한 소득을 올렸던 마을 사람들이 수 백 년 동안 내려오던 그 생계 터전을 잃고도 어업권을 취득하고 있지 않아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해 안타까워했다. 부사방조제 사업은 보령군 매립면적이 1천8백87ha이며, 부사지구가 1천2백21ha이다.

마을에 효자 이재원, 이재정처 유인 청송 심씨 지려가 있다.

이들은 부친이 병환이 나자 낮이나 밤이나 탕약을 올리며 간호하느라 의복을 벗어놓고 편히 쉬지도 못했으며, 날이 갈수록 병환이 더욱 심하여 백약이 무효라 심지어는 대변을 맛보아 병세를 짐작하고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한다. 부친이 생선을 원하였으나 겨울이라 눈이 쌓이고 얼음이 얼어 도둔포에 갔으나 구하기 어려워 빈손으로 돌아오다가 바닷가에서 해가 저물었는데, 얼음 언 웅덩이에 숭어 두 마리가 있어 잡아다 봉양했다.

또한 부친의 병환에 노루고기가 효험이 있다 하여 노루를 잡으러 산에 갔으나 구하기 어려워 울며 돌아오는데, 마침 하늘이 도왔는지 노루 한 마리가 홀연히 나타나 사로잡아 부친의 병환에 효과를 얻었다.

또한 어머니도 이처럼 봉양하다 병세가 깊어지자 임종에 이르러 손가락을 베어 피를 드시게 하여 두 달이나 명을 연장케 했다. 돌아가신 후에도 호상과 장례의 예를 갖추고, 매일 성묘하며 3년을 한결같이 하여 인근 마을에서까지 칭송을 들었다. 이에 당시 사림(士林)들이 고종임금에게 문서를 보내어 정려를 세우도록 했다고 전한다.

-월호리(月湖里)

월호리는 백제 때 비중현에 소속되었다가 신라시대 서림현의 비비현이었으며, 고려 때는 임천의 비인현 소속이었다. 그 후 조선 말 비인군 서면에 속한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장동리, 호동리, 화동리를 합하여 월아와 호동의 이름을 따서 월호리라 하여 서천군 서면에 편입되었다.

호동은 여우가 많은 곳에 마을이 생겼다 해서 호동이라고 부른다 하며, 월아성은 마을 지형이 기러기의 날개처럼 생겼고, 겨울 달밤이면 거위의 울음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마을이라 월아(月鵝) 또는 월하(月下)라 불렀다 한다.

월하성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산을 옥녀봉이라고 부르며, 산에 옥녀직금형(玉女織錦形)의 명당이 있다 해서 풍수지리사들이 찾아드는 산이다. 큰장굴 동쪽으로 있는 마을을 화동이라 하는데, 마을의 땅이 기름져서 곡식이 잘되는 마을로서 화동(禾洞), 숫굴이라고 부른다.

작은 장굴에서 비인면으로 나가는 재에 성황당이 있는데, 이 재를 서낭댕이라고 부른다.

월호리는 행정리 장동과 월하성으로 구분되는데, 월하성은 달빛 아래 신선이 노니는 것 같은 마을이라 해서 신성지로 꼽히던 마을이었다 하며, 1990년 말 월하성항이 2종항으로 승격 되었다.

옥녀봉 아래에는 음력 정월초이렛날 제를 지내는 당집이 있다. 당집은 동쪽에 또 한 곳이 있는데 매년 이 두 곳에서 제를 지내며, 마을 총회를 열어 제주가 결정되면 거처에 금줄을 치고 일주일 동안 타인의 출입을 금한 후 매일 마을 우물물을 길어 목욕을 한다. 음식을 마련하는 집도 마찬가지로 정성을 다하며, 특히 제수에는 돼지고기를 쓰지 않고 쇠고기를 쓴다. 당제를 지낸 후 거리제, 샘제, 선창제 등을 지내는데, 바닷가 마을이라서 뱃사람들이 무사하고 풍어를 기원하는 내용을 담는다고 한다.

공동사업으로 바지락, 굴, 전복, 해삼, 가무락, 새꼬막 등을 양식하며, 그 수입금을 마을기금으로 사용한다. 그 사업비로 1993년도에는 7백만원을 투입, 선창 방파제 가는 길 포장사업과 마을안길 보수공사 등을 실시했으며, 같은 해 11월에 6백만원의 사업비로 마을 앞 바다 쪽에 난간을 설치했다.

마을에 30여 척의 어선이 있는데, 대하, 꽃게, 주꾸미가 많이 잡히며 김도 생산한다.

농업과 어업을 병행하는 가정이 많고, 남양 홍씨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마을 인심이 좋고 단합이 잘되며, 젊은이가 많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활기찬 마을이다. 어촌체험마을로 조개잡이를 하기 위해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다.

이 마을에는 아홉 가족의 생계를 오로지 바다에 걸고 늙은 부모와 식물인간이 된 형을 알뜰히 보살펴 주변으로부터 칭송을 듣고 있는 홍생표 씨와 백화열 씨 부부가 살고 있다.

-신합리(新蛤里)

서면 신합리는 면소재지로 면사무소와 농협, 우체국, 서면중학교, 서면초등학교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서면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신합리는 백제 때 비중현에 속했고, 신라시대 서림군의 영현인 비비현에 속했으며, 고려 때는 임천에 속한 비인현 소속이었다. 1413년에 비인현에 속했고, 조선 말 비인군 서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신촌리, 합전리, 광돌리, 알찬리를 합하여 신촌과 합전의 이름을 따서 신합리라 하여 서천군 서면에 편입되었다.

신합리는 합전과 선돌로 나누어지는데, 신합리 중앙에 자리 잡은 마을을 합전이라 하며, 신촌 서

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옛날에는 바닷물이 드나들어 썰물일 때는 조개를 많이 잡았다 해서 합전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합전 동쪽에 자리 잡은 마을을 신촌이라 하며, 마을이 새로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합전 서쪽에 있는 마을은 알찬 또는 분말이라 한다. 선돌 북쪽에서 주항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채독배기 또는 조개재라 부른다. 이는 고개에 차돌이 많이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조개껍질이 많아 조개재라 했다고 한다.

합전 북쪽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서낭댕이라 하며, 고개에 서낭나무가 있고 돌이 많이 쌓여 있었다 하며, 주변사람들이 정성을 들이던 곳이라 한다. 합전 북쪽 산을 버머성국이라 하는데, 산이 범의 형국과 같다 해서 범형국으로 부르던 것이 변하여 버머성국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한다.

알찬 앞과 월호리 사이에 있는 섬을 모도, 또는 띄섬이라고 하는데, 섬이 띄를 두른 것 같이 생겼다 해서 부르게 되었으며, 옛날에는 떼가 좋아서 많이 떠냈다 한다. 지금은 휴양지로 개발되어 외지인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선돌은 의외로 어가보다 농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으며, 모두가 수리시설이 없는 천수답에서 옥토를 일구는 부지런한 마을이다.

안선돌과 밖선돌이 있으며, 목안나달이라고도 부르는데, 도둔리와 경계지역에 있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좁은 목의 안쪽 마을이라는 뜻에서 연유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구 면사무소 자리를 차독백이라 하는데, 차독배기 근처에 형성되고 있던 관공서가 1990년대 초 현 위치로 이전했다. 각종 규제로 인해 도로변 건축이 어려워 상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소재지다운 면모를 갖추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또한 옛날부터 마을 한가운데 공동묘지가 자리 잡고 있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분분하다. 7ha의 가무락 양식장이 있는데, 마을 공동으로 채취하여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활용한다.

-도둔리(都屯里)

서면 도둔리는 10개 마을로 형성되어 있는 바닷가 지역으로, 춘장대해수욕장이 있어 여름철 피서객은 물론 사철 바다를 찾는 인파가 모여 드는 곳이다.

또한 홍원리를 비롯한 주변에 횟집이 많아 타 지역에서까지 싱싱한 바다회를 먹기 위해 찾아들고 있다.

백제 때 비중현에 속한 산과 모래밭이었으며, 신라시대 서림군의 영현인 비비현에 속해서 마을이 이룩되기 시작했다. 고려 때는 임천에 속한 비인현이었는데, 오랑캐들이 자주 침범해 오곤 했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1413년(조선 태종 13)에는 비인현에 속해서 그 외곽이 모래사장인데 조선 세종 원년에 왜적의 배 50여척이 침입하므로 만호(萬戶) 김성길이 아들 윤(倫)과 군사들을 이끌고 싸우다가 아들과 함께 전사한 곳이며, 그 후 바다로 쳐들어오는 오랑캐를 무찌르는 관방(官房)이 있었다.

조선 말에는 비인군 서면의 지역으로 곶으로 되어 있다 해서 도둠곶, 도둠고지 또는 도두음곶, 도둔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도둔리라 해서 서천군 서면에 편입되었다.

도두음곶은 동리 서쪽으로 모래사장 위에 차분히 자리 잡은 마을이다. 포구로서도 한 구실을 하는 마을로서 고려, 조선 초에 크게 군사가 주둔했던 마을이라 하며, 곶으로 되어 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옛날에 관(官)이 크게 자리 잡았던 곳이라 한다.

도둔고지 서쪽에 윷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요동이라고도 하며 윷을 노는 멍석처럼 널려 있는 판위에 마을이 있다 해서 이처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도둔고지 남쪽에 있는 마을을 수영장불이라 하는데, 모래사장 곁으로 펼쳐진 마을이 신선객이 쉬는 고장 같은 형국이라 한다. 중리 동쪽에 있는 산을 배기라 하며 배기 동북쪽으로 똥구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섬의 산이 둥글다 해서 둥구런 섬이라 부르던 것이 변해서 똥구섬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하며, 귀내 남쪽으로 도깨비산이 있는데, 옛날 산이 험하여 도깨비가 나왔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전한다.

도둔이 동북쪽으로 모롱이에 있는 마을을 값진모랭이라 하며, 마을에 있는 산도 값진모랭이라 하는데, 모롱이가 뜻이 있는 모롱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도둔리는 1리 장벌, 2리 남촌, 3리 동리, 4리 아파트촌, 5리 중리, 6리 요치, 7리 정동, 8리 공암, 9리 홍원, 10리 요포로 구성되어 있다.

서면사무소를 지나 바닷가의 해풍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소나무 방풍림이 마을을 감싸고 있는 첫 동네 장벌은 10개 마을로 나뉘어진 1리에 속한다.

장벌은 긴 벌판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하며, 수영장불이라고도 부르는데, 모래사장 곁으로 널려있는 마을이 신선객이 쉬는 고장 같은 형국이라 하고, 벌판이 멀어 가다가 쉬어갔다 해서 쉬엄장벌이라고 한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다. 마을이 군데군데 흩어져 있으며, 김공장이 여러 곳 자리 잡고 있다.

도둔2리를 남촌이라 하는데, 남쪽에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3리는 동리라 하며, 도둔고지 동쪽에 위치하고 그로 인해 동리(東里)라 칭한다. 4리는 아파트촌으로 춘장대 곁에 있으며, 한전이 자리 잡으면서 건설된 아파트단지로 주로 한전직원들이 입주해 있다. 5리 중리는 도둔고지 중앙에 자리 잡았다 해서 중리라 하며, 옛날에는 동백꽃으로 숲을 이루었다 하는데, 바다바람이 안과 밖으로 교차하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어 여름철 유동인구가 많다. 6리는 요치라 하며, 도둔고지 북쪽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윷재 또는 요티라고도 부르는 마을이다. 마을 앞에 백사장이 펼쳐져 있어 중국 문신이 살던 요나라 때의 모래사장 언덕과 비슷하다는 마을이며, 관광지로 지정된 춘장대해수욕장이 자리 잡고 있다.

서도초등학교 뒤편 춘장대해수욕장 진입로 서쪽으로 조금 지나 우회전하면 굴다리를 경계로 도둔7리 정동마을이 펼쳐진다. 전에는 마을이 삼태기 형상이었다 하여 삼태마을이라고도 불렀다는 정동리는, 산업철도로 마을 앞 경계지가 담을 치듯 형성되어 있고, 옆에 있던 동산이 헐려 철도 건설에 쓰이면서 마을 모양이 다소 달라졌다 한다. 정동은 공정이라고도 부르고, 전에 공암, 유포, 홍원이 한마을이었다 하며, 샘이 많아 샘골, 새암구석이라고도 불렀다. 지금은 우물이 한 곳 남아 있는데 물맛이 매우 좋다고 한다.

서면에서도 제일 서단에 위치한 어촌마을 홍원리는 전에 도둔리 탄포라 칭하다 70년대 도둔리 공정마을에서 분구하여 행정구역상 홍원리가 된 마을이며, 도둔9리에 속한다.

후망산(候望山)을 기준으로 동북쪽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며, 바닷가 마을이라서 90%가 어업에 종사하고 어선만도 60척에 이른다. 이 마을에서는 매년 가을에 전어축제가 개최되어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다. 이곳 특산물로는 주로 멸치가 많이 생산되어 멸치액젓으로 유명하며, 도미, 농어, 꽃게를 비롯한 잡어가 많이 잡혀 젓갈 생산을 다량으로 하고 있다.

음력 1월 7일에는 마을주민 2백여 명이 참여하여 마을의 안녕과 어민들의 안전사고 및 풍어를

기원하는 풍어제를 지낸다. 홍원항의 풍어제는 5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1940년경 중국, 일본어선 4-5척이 갈치, 조기 등을 싣고 입항하면서 어항이 형성되었으며, 그 후 꾸준히 늘어 어항으로서의 제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성어기에는 하루 150여척이 입출항 하여 어업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낚시터와 횟집이 널리 알려져 주말이면 외지에서 많은 차량이 들어오며, 성수기에는 5백여 대가 소통될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관광객의 수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도둔리 남촌에서 동백정 방향으로 가다보면 공암 마을에 이른다. 이 마을 도로변에 위치한 구릉에서 돌도끼가 발견되었으며, 이 지역은 해안과 근접해 있고 개활지가 형성된 지역이다. 이곳에서 발견된 돌도끼는 조개날 도끼로 날 부분은 4.5㎝, 몸통길이는 7㎝로 이등변 삼각형 형태를 띠고 있고 손아귀에 잘 잡히는 것이다.

◉ 도둔곳 전장지

서면 도둔리는 1리에서 10리까지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마을이다. 이곳은 해안선이 육지 쪽으로 반달모양으로 패어 곶을 이루는데, 이를 「도둔곶」이라 부른다. 이곳 지명을 설명한 기록을 보면 「도둔곶, 도둔고지, 도둔이, 도둔 등으로 불렀으며, 고려와 조선 초에 크게 군사가 주둔했었다」고 적고 있다. 이곳에서는 조선 초 치열한 해전이 벌어졌다. 훗날 사람들은 이 전투를 일컬어 「도둔곶 싸움」이라고 불렀다.

도둔곶 싸움은 조선조 우리 정부군과 왜구들의 싸움이었다. 물론 신라 때에도 왜구의 출몰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왜구들의 출몰이 잦았고 이들로 인한 폐해가 극심해진 것은 고려 때에 들어 와서부터 였다. 특히 고려 말과 조선 초엽에 걸쳐 한 왕조가 쇠퇴하고 새 왕조가 정비되지 못한 시기에 왜구들의 극성은 더욱 심했다. 최선의 국방은 굳건한 내치(內治)에서 비롯된다는 역사 원리를 다시 한 번 확인케 하는 대목이다. 이 지역의 왜구 출몰은 특히 심했던 것 같다. 서천 지역의 왜구 침입과 관련한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왜구는 1357년(공민왕 7) 4월, 금강하구를 거슬러 올라와 韓州(한산)를 침입했다. 왜구들은 이어 1376년(우왕 2) 진포와 한주를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우왕 13년까지 크게만도 6차례에 걸쳐 이 지역을 침입, 살인과 약탈을 일삼았다. 고려 말 이 지역에 자주 출몰했던 왜구들은 조선조에 들어서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 왜구들은 도둔곶에 50여 척의 병선을 보내 조선 정부군의 배에 불을 지르고 비인현성을 포위하여 공격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왜구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군사를 주둔시켰다. 충청도 오천에 수군사영(水軍使營)을 설치했고, 서천포(지금의 장항)에 마량진을 두었다. 세종 19년에는 서천지역에도 읍성을 축조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또한 왜구의 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로, 당시 조정에서도 왜구 문제와 관련한 대책마련에 힘을 썼다.

도둔곶 싸움의 승리가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은 이처럼 왜구 피해가 심각하고 정부가 대책 강구에 부심하고 있던 가운데 이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일어난 싸움이어서 더욱 치열했었다. 전투가 일어난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세종 원년 5월 병자일, 왜구들은 병선 50여 척으로 도둔곶 해안을 침입, 우리 어선을 약탈했다.

왜구 침입 소식이 알려지자 구진의 만호 김성길이 출동했다. 김성길은 급히 군사를 모아 군선에 태워 출항, 마량 가까이에 이르러 부사리에 일부 병력을 상륙시키고 전투의 지휘는 자신과 아들 김륜이 함께 맡기로 했다. 그리고 일부 병력은 군선에 그대로 태워 마량 앞바다를 돌아 바다 쪽에서

적을 공격케 했다. 그러나 김성길은 부사리 고개에 이르렀을 때 적의 수효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발견하고 비인현과 서천포에 원병을 요청, 적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우리 군은 우선 적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바다를 막은 뒤 야음을 이용, 적을 무찌를 계획을 세웠다.

왜구들은 최우선 목표가 식량과 물품 약탈이었으므로 우선은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김성길은 수영에 익숙한 수군을 골라 작은 배에 태워 왜병선 가까이로 접근케 한 후 불화살 신호와 함께 배를 기습토록 했다. 싸움이 시작되자 왜구들은 우선 일부 병선을 출항시켜 약탈품을 빼돌리려 했다. 우리 군에겐 좋은 기회였다. 적이 분산돼 공격하기가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바다에서 적을 공격키로 하고 기다리던 군선들이 도망치는 왜구들의 병선을 쳐부쉈다.

그러나 전투에 능한 왜구들은 급조된 우리 수군이 당해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수군이 열세를 면치 못했다. 한편 육지의 사정은 이와 달랐다. 김성길은 적을 전멸시켰다. 김성길은 그러나 수군이 열세에 처해있다는 소식을 듣자 갑옷을 벗을 틈도 없이 바다로 나갔다. 김성길은 여기서 장렬한 최후를 맞는다. 아버지 김성길이 적의 칼을 맞고 전사하는 것을 목격한 김륜도 많은 적을 무찌르다 전사한다. 뒤늦게 달려온 서천포의 원병들이 왜구를 섬멸, 도둔곶 전투는 아군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도둔곶 싸움은 그다지 전사를 빛낼만한 전술이 펼쳐졌거나 한 싸움은 아니다. 그 승리가 조국을 위난에서 구했다거나 하는 대승리도 아니다. 하지만 고려말, 조선초 서해안, 특히 우리고장인 서천지방에 출몰, 주민들을 약탈했던 왜구를 혼내준 전투로 기록되기에 별도로 기술한다.

-마량리(馬梁里)

마량리는 전에 동백정 해수욕장이 자리 잡고 있어 동백정과 함께 많은 관광객들이 찾던 지역이었으며, 지금도 50-60대 지역주민들에게는 향수가 서린 바닷가이다.

현재는 이곳에 서천화력중부발전소가 들어서 당시 모습은 찾을 수 없고, 외지에서 많은 주민이 유입되어 발전소에서 종사하고 있다. 동백정에는 천연기념물 169호로 지정된 80여주의 동백나무가 있으며, 몇 년 전부터 군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계단 등 일부를 정비하고 서해바다의 푸른 물이 잘 보이도록 해안 철책 밖으로 있는 소나무 방풍림 일부를 베어내어 시야를 확 트이도록 했다.

마량 포구

마량리는 백제 때 비중현에 속한 해변이었다. 신라시대에는 서림군의 영현인 비비현에 속했으며, 고려 때는 임천의 비인현 소속이었다. 1413년(조선 태종 13)에 비인현의 동백꽃이 많이 피는 곳으로 알려졌으며, 고려 말부터 대적의 침입이 잦았던 곳으로 조선 세종 때는 병선이 자주 정박했었다 한다.

지형이 마른 말과 같다는 설인데,조선말 비인군 서면의 지역으로 1655년(효종6)에 남포현에 있 던 충청수군 마량진을 이곳에 옮겨왔으므로 마량진또는 마량리라 했으며,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마량리라 해서 서천군 서면에 편입되었다.

마량리 서쪽으로 바위로 된 작은 섬이 있는데 이 섬을 준여라고 부른다. 물살이 맴도는 곳에 자리 잡은 섬이라 병선들이 선로에 조심하던 섬이라한다. 마량 동쪽 도둔리와의 사이에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을 안도둔 또는 내도둔이라 부른다. 안도둔과 마량 사이에 있는 길을 장승배기라 하며, 옛날부터 어민들을 잡귀에서 지키는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의 장승을 세워 이곳을 장승배기라 불렀다 하고, 내도둔과 마량사이에는 가치라고 부르는 작은 섬이 있다.

내도둔 북쪽에 있는 섬을 오력도라 하며, 섬에서 서쪽으로 연도가 보이는데, 옛날 장수 한 사람이 마량에서 연도로 건너다닐 때 뛰어넘다가 신발 한 짝이 떨어져서 섬이 되었다는 전설의 섬이다.

마량 북쪽으로 꼬챙이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 섬이라 꼬챙이라 부르는 곳이 있다.

조선 효종 6년 남포현에 있었던 진이 이곳에 옮겨올 때는 첨사 1인,싸움배 1척,밤빗배 1척,집 배 1척,기다림배 3척이 있었던 마을이라 하며,동백정 옆에 위치한 당집은 기와지붕에 붉은 벽돌로 지어졌다.지금부터 4백여 년 전 마량의 수군첨사가 험난한 바다를 안전하게 다니려면 이곳에 제단 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라는 계시를 받고 제단을 만들며 심은 동백나무가 오늘의 동백나무 숲을 이 룬것이라 전해진다.

마량리는 내도둔과 마량으로 나뉘어지며, 내도둔은 느티나무가 마을 입구에 수호신처럼 서있고 바다를 바라보고 앉아 있는 마을로 뒤를 야산이 감싸고 있어 아늑하게 보인다.

이 마을에 있는 서천화력중부발전소는 1976년 12월 9일 발전소건설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1978년 7월 1일 서해건설사무소를 발족, 같은 해 10월 15일 서해화력 제1, 2호기를 착공했다.

이어 1983년 3월 31일 제1호기를 준공하고, 1983년 9월 25일 서해화력발전소를 발족시켰다. 1983년 11월 30일에는 제2호기를 준공한데 이어 1983년 12월 31일 서해건설사무소 기구를 폐지하고 1984년 4월 7일 서천화력발전소로 대칭 동년 11월 7일 준공식을 가졌다.

그 후 지난 1996년 1월 5일 서천화력발전처로 명칭이 바뀌었고, 다시 서천화력중부발전소라는 명칭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천화력중부발전소는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부응한 국내탄 최대 사용 발전소로 연간 100만톤 이상을 사용하며, 국내 9대 탄광에서 이를 공급받고 있다. 연간 45만5천7백㎘의 유류대체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역의 고용증대 효과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발전소 동편 마을이 바로 마량진이 위치했던 곳이다.

마량진은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가 관할하던 진이다. 1655년(효종6)에 남포 광암에서 배를 보관하기가 불편하여 마량진으로 옮겨 설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마량진성의 규모는 호서읍지 마량진에 보면 객사(客舍), 아사(衙舍), 내아(內衙) 진무청(鎭撫廳) 창고(倉庫), 군관청(軍官廳), 사령청(使令廳), 육물고(六物庫) 등이 있다. 또한 첨사 밑에 군관이 15인, 아전 25인, 통인이 15인 군뇌(軍牢) 2인 있고, 전선이 1척. 방어선 1척, 복물선(물건을 운반하는 배) 1척, 사후선(伺候船, 적의 동정을 염탐하는 배)이 3척 있다고 되어있다. 현재 마량진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민가가 밀집되어 있으며, 다만 첨사가 살았다고 첨사터라고 부르는 곳에 수령(樹齡)이 오래된 정자나무가 2그루가 있다.

동백정의 당제는 500여 년간 이어져 왔으며, 용왕제(龍王祭)성격을 띤 당제이다. 이곳에 신당이

생기게 된 동기는 옛날 이곳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던 할머니의 현몽으로 비롯되었다고 한다.

간조의 차가 많은 모래사장 아래 갯가에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이곳에 정착한 것이 처음의 인류의 정착이었다 한다. 바다를 바라보면 큰 고기떼가 지나가곤 해서 마을 사람들은 뗏목배를 만들어 고기잡이를 나갔었는데, 고기떼를 찾아 마량 밖에까지 나가기만 하면 배는 바닷물에 휩쓸려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한다.

이곳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이곳에 사는 한 할머니도 젊었을 때 과부가 되었는데 이유는 아들 하나를 낳고 부군이 바다로 고기잡이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후 할머니는 아들 하나를 믿고 남은 일생을 보내던 중 아들이 자라서 20세가 되던 해에 뗏목으로 배를 만들어 그 배로 고기잡이를 나갔으나 역시 마량에서 돌아오지 않고 죽고 말았다. 남편에 이어 아들마저 잃은 할머니는 실의에 빠졌다. 할머니는 세상에 산다는 것이 죄스러워서 몇 번인가 죽을 것을 생각 하였으나 죽지 못했다.

하루는 그 할머니가 바람이 몹시 부는 날 바닷가에 나갔다는데, 마량 뒤쪽 연도 사이의 하늘에서 구름이 나지막하게 내려오더니 바다에서 물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용의 꼬리를 보고 그때서야 마량 밖에 용왕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용왕을 위해 주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화를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 할머니는 용왕신을 모시고 신당을 자기 손으로라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여러 가지 신당을 만들 꿈에 부풀어서 잠이 들었다. 할머니가 곤한 잠에 들어 있을 때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충격을 받는가 싶더니 몸이 편안해지면서 백발의 노인이 마량 뒤쪽 바다에서 나타나서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점잖게 앉아 말하기를 마을 뒤 백사장에 밀려오는 것이 있을 테니 그것을 가지고 신당을 마련하라고 하였다. 백발의 노인이 문을 열고 나간 후 꿈에서 깨어난 할머니는 이것이 틀림없는 신의 조화라고 생각하고 날이 새기만 기다렸다. 할머니는 날이 밝아지자 바삐 바닷가로 뛰어가기 시작했다. 마을 뒤 모래사장에 나와서 바닷가를 살펴보니 그것은 뚜껑이 있는 널이었다. 할머니가 뚜껑을 열었을 때 그 널 속에는 서낭 다섯분과 동백씨 한 되가 들어 있었다.

그 후 할머니는 꿈에 백발 노인이 자취를 감췄던 곳에 동백씨를 뿌렸고, 지금의 동백정이 있는 곳에 신당을 지어서 그 신당에 서낭 다섯분을 모셨다 한다. 그 후로 매년 음력 정월 초하루에 당에 올라가서 초사흗날 제사를 지내고 내려온다. 이곳에 신당을 짓고 서낭 다섯분을 모신 후부터는 마을이 조용해졌고, 마량 밖으로 고기잡이를 가서도 무사히 돌아오곤 하였는데, 세종 때 당제가 소홀해지자 왜구가 이곳에 쳐들어 와서 큰 난리를 겪은 일이 있은 후부터는 절대로 당제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지금의 동백정은 전의 것을 헐어버리고 조선 때의 한산군 청사를 헐어서 1965년에 지은 것이다. 또한 구전에 따르면 옛날에 80주의 동백나무를 이곳에 심어서 지금은 85주로 늘어났다고 한다.

매년 봄이면 이곳에서 동백꽃 주꾸미 축제가 개최되어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온다.

마량리에서도 풍어제를 개최하는데, 섣달 초순에 마을 회의에서 화주를 선정하여 풍어와 마을의 안녕을 위한 풍어제를 지낸다.

마량리 동백꽃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중국 조정에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계속될 때, 을나와 소나의 아버지는 산속에서 난을 피해 있

다가 육지에서 그들의 칼에 맞아 죽느니 딸 자매를 다른 나라에 가서라도 잘 키워야겠다는 집념에서 아내와 딸 자매를 이끌고 배에 올라탔다. 그들을 태운 배는 용케 노략질을 일삼는 해적을 피해서 동쪽으로 달렸다.

그들은 모든 파도를 헤치면서 꼬박 사흘 밤낮을 파도와 싸우다가 날이 맑게 갠 날 새벽에 먼동이 트자, 앞을 보니 큰 바위가 있고 모래사장 근처에 배가 떠 있는 것을 알고 환호성을 지르며 육지에 올랐다.

육지엔 사람도 집도 없었다. 그들은 우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모래밭에 솥을 얹어 놓고 밥을 해 먹은 다음 주위를 살펴보았다. 주위는 온통 동백나무로 가득 찼고 꽃이 불타는 듯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그들은 바닷가를 바라보고 우선 고기잡이를 해서 살아 갈 수 있는 땅임을 알았으며, 산 아래 들을 보고서는 땅을 일구면 능히 전답을 만들어 곡식을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즐거워하면서 초막부터 짓기 시작했다.

그들은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제법 알뜰하게 초막을 지었다. 방은 두 칸으로 만들어서 아래 칸은 그들이 부모가 썼고 뒤 칸은 을나와 소나가 쓰기로 했다. 그들은 다음날부터 고기를 잡아서 먹을 것을 장만하고 또 한편으로는 땅을 일구어 논과 밭을 만들며 곡식을 뿌렸다. 중국에서 가지고 온 차의 열매도 뒷동산에 뿌렸고, 방에는 동백꽃을 꺾어다가 아담하게 놓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와서 살고 있을 때 중국에서는 서로 싸우다가 끝내는 강자가 나라를 세우며 통일을 보게 되었다.

오랫동안 싸움이 계속된 이 큰 나라는 오랜 싸움에 백성들이 굶주려서 말이 아니었다. 새로 자리에 오른 왕은 천하에 둘도 없는 폭군이었다. 자기 부하들을 먹여 살리고 자기가 영화를 누리기 위해 더욱 더 백성을 괴롭혔다. 폭력에 시달리는 백성들은 어느덧 입을 모으듯이 우리나라에 피난 온 을나와 소나의 아버지가 왕이 된다면 백성들이 행복할 것이라는 말이 떠돌기 시작했다. 마침내 폭군에게 을나의 아버지가 백성이 받드는 사람이란 말이 귀에 들어가 폭군은 을나의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다. 자신의 적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 왕은 수소문 끝에 을나의 아버지가 가족과 함께 동쪽으로 피난 갔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배에 실어서 이 잡듯이 뒤져 꼭 잡아내라고 명령했다.

폭군의 군사들은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다가 그들이 마량 땅에 거주하는 것을 알아내고 쳐들어 왔다. 소나의 아버지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쉽게 붙들렸다. 그녀의 어머니도 쉽게 잡혔으나 소나와 을나는 들에 있어서 잡히지 않았다. 군사들은 소나의 아버지에게 중국으로 건너가자고 하였으나 그가 절대로 중국에 건너가지 않겠다고 버티자 군사들은 그를 포박해서 배에 끌고 가려 했다. 그러자 그는 “나는 이 좋은 땅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늦게 찾아온 것을 후회한다. 이 땅에서 죽어도 뼈를 묻으리라”하곤 혀를 깨물고 자결하였다. 을나의 어머니도 남편이 죽는 것을 보자 바위위에 올라 바닷물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다. 이들이 죽자 군사들은 딸이라도 잡아서 데리고 가야겠다고 을나와 소나를 찾기 시작했다.

을나와 소나는 마침 돌아오는 길에 군사들이 해변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집에 들렀다가 아버지의 시체를 보고 어머니의 시체를 찾았으나 어머니 역시 바닷물에 시체로 떠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땅을 치고 통곡했다. 그들은 이렇게 앉아만 있다가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서로가 은장도를 한 개씩 품고 각기 헤어져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한참을 도망치다가 많은 군사들에게 들키고 말았다. 을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남쪽 모래사장으로 도망쳤고, 소나는 북쪽 모래사장으로 도망치다가

끝내는 군사들에게 포위되었다. 을나는 군사들과 싸우다가 끝내 죽었고, 소나는 그들에게 포위되자 은장도를 꺼내어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피난 온 한 선비의 가족은 몰살당했다. 그 후 일 년이 흘렀다. 을나가 죽은 자리에서 동백나무가 한그루 생겨났고 소나가 죽은 자리에서도 동백나무가 솟아나서 꽃이 피기 시작했다. 소나가 죽은 자리에서 피는 동백꽃은 연분홍이었고, 을나가 죽은 자리에서 자란 동백나무는 빨간 꽃이었는데, 이는 소나와 을나의 넋이라고 전해지며 가련한 이국여인들의 한 맺힌 꽃이라고 전한다.